

# 청소년 차 마시기 생활화...보성군 학교 녹차 지원 꾸준

### 9년 연속 운영...군비 80% 부담 전남 초중고 114개교 공급 설문조사 반영 녹차 라떼도 지원...차 선호도 향상 인식 제고

“청소년들 차 마시기 생활화하자”  
보성군은 청소년들의 차 마시기 생활화를 돕기 위해 9년 연속 전남도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보성녹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보성녹차 지원사업’

은 보성군과 전남도교육청이 각 학교와 협의해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보성군이 80%, 각급 학교에서 20% 부담해 보성차(茶)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64개교, 중학교 25

개교, 고등학교 21개교, 기타 4개교로 총 114개교이다. 이중 보성군 지역 학교는 17개교이다.

지난해 운영사항 점검 후 만족도가 높은 48개교로 재선정됐으며, 올해 66개 학교가 신규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보성군은 대상 학교들에 녹차·홍차 티백(1.2g) 34만1940개, 녹차 라떼(16g) 8만7420개, 가루 녹차(50g) 7177개를 지원하고 있다.

보성산 녹차·홍차 티백은 학생 개인의 기호에 따라 우려먹을 수 있도록 각 학교 급식실에 제공하고 있으며, 가루녹차는 각종 요리 시 데치고기 누린내, 생선 비린내 등의 제거를 위한 조리용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만족도 설문조사를 반영해 청소년의 차에 대한 인식 변화와 선호도 향상을 위해 녹차 라떼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에 대해 도내 인성 교육 및 다도 교육 등과도 연계해 학생들에게 보성차에 대한 친숙함과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아이들의 비만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학생들이 마시는 만큼 품질이 뛰어나고 맛 좋은 녹차·홍차 티백 등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의 차 선호도 향상과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위해 새로운 차 제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보성녹차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보성차를 마시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광양 와우공원과 마동체육공원을 잇는 산책길 ‘시민 운동길’.

## 광양시 산책로 연결 ‘시민 운동길’ 조성

### 상반기 와우공원~마동체육공원 마동저수지·현충탑공원 연결 추진

광양시가 민선 8기 공약사업 일환으로 도심지 내 단절된 산책로를 연결하는 시민 운동길 조성 사업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양시에 따르면 상반기 와우공원과 마동체육공원 구간에 산책로 준공을 시작으로 도로(삼화섬공원 인근)로 단절된 산책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6월 준공된 와우공원에서 마동체육공원 구간은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길이 500m, 폭 3m의 산책로를 새롭게 조성하고 수목 식재와 쉼터를 설치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시계획도로(5차로)로 단절된 산책로는 앞

으로 연결로 설치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공사를 추진하고 202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연결로 구간 등 모든 시민 운동길 개통에 앞서 와우공원 무장애도시설 조성공사와 와우생태호수공원 경관개선 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앞으로 인근 마동저수지생태공원과 마동현충탑공원 산책로도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야산 등 지역 내 산책로를 연결해 해안길, 자전거도로, 숲길 등 도심 공원과 연계함으로써 시민들이 일상에서 산, 바다, 공원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재원 광양시 공원과장은 “도심지 어디에서나 산책로와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절된 시민 운동길 연결사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백세 축하합니다...구례군 지역 어르신 백수연

### 주민 200여명 무병장수 기원

구례군이 100세 생일을 맞은 지역 어르신을 축하하기 위해 백수연(白壽宴)을 열었다.

구례군은 4일 광의면 다목적 민민회관에서 라분동씨의 백수 잔치를 열었다.

광의면 하대마을에 사는 라분동씨는 이웃들의 존경을 받는 어르신이다.

이날 잔치에는 라씨의 가족과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그의 무병장수를 기원했다.

구례군은 초대 가수 공연 등을 마련했다.

구례군은 우리나라 대표 장수 고장을 알리기 위해 ‘백수연 전통문화 행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구례군이 추진한 두 번째 백수연이다.

잔치에 참석한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100세 시대에 걸맞은 명품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구례군(군수 김순호·맨 오른쪽)이 올해 100세 생일을 맞은 라분동씨의 백수연을 4일 열고 어르신의 무병장수를 기원했다. <구례군 제공>

## 광양매실, 소비자신뢰 브랜드 9년 연속 대상

### 지역특산물 부문 수상

광양시 대표 농산물 브랜드 ‘빛그린 광양매실’이 제17회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지역특산물 부문에서 9년 연속 대상에 수상했다.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은 사단법인 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해 소비자에게 가장 신뢰받는 부문별 대표브랜드를 선정하는 상이다.

올해는 전국 지자체 315개 브랜드 중 1차 조사를 통해 63개 브랜드를 선정하고 브랜드 인지도와 선호도,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지역특산물 부문 대상에 ‘빛그린 광양매실’이 선정됐다.

광양매실은 다른 지역보다 개화 시기가 빨라 충분한 적산온도를 유지해 과즙이 많은 편이다. 당도와 산도, 구연산 함량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또 1997년 정매실농원 홍쌍리 대표 전통식품명인인 제14호 지정과 2007년 광양매실 지리적표시 제36호 등록, 2008년 광양매실 사업특구 지정, 2010년 빛그린 상표 등록 및 광양매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등 경쟁력을 키워왔다.

광양매실의 소비 확대와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온라인 홈쇼핑, 랜선장터, 라이브커머스 등 전략적인 홍보 마케팅과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광고 등을 제작했다. 지난 6월 매실 상생 마케팅 행사를 통해 수도권을 공략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여수 사회적경제기업 4곳 지역민 삶의 질 향상 힘 모은다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200명 친환경 생활·치매예방 등 교육

여수 사회적경제기업 4곳이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힘을 모은다.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는 최근 주택관리공단 주거행복지원센터와 협약을 맺고 이달 한 달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여수 사회적경제기업 4곳은 지역 영구임대아파트 4곳 입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과 지원사업을 벌인다.

이번 사업에는 나무에그림주식회사, 주식회사 미루나무, 우리노리협동조합, 주식회사 에코플러스21, 주식회사 스카이드림 등이 참여한다.

친환경 생활 인식을 높이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이 마련된다. 목공 재활용 제품, 친환경 석고 방화제, 향아리 향초 등을 만들고 원예 체험, 텀링(비석 치기) 체험 등도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사회적경제기업 4곳과 함께한 사회

서비스 제공 사업에 입주민 150여명이 참가했다. 김태현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센터장은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더욱 확대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넓히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가 최근 주택관리공단 주거행복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4곳과 협약을 맺고 9월 한 달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여수시 제공>

## 곡성 주민들 산청 견학...양수발전소 유치 모색

### 지역 발전·관광 연계 방안 논의

올해 양수발전소 유치에 도전하는 곡성군 죽곡면 고치마을 주민들이 양수발전소가 있는 경남 산청을 찾았다.

곡성군은 죽곡면 고치마을 주민 50명이 최근 산청 양수발전소를 찾아 지역 발전과 관광자원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곡성군은 한국동서발전과 협업체 발전용량 500MW 규모 양수발전소를 유치하기로 했다.

견학을 위한 사업비는 1조원 규모이다. 곡성군은 지역 고용 창출과 관광산업 연계 등을 통해 생활인구 1000만명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오는 11월 선정을 앞둔 신규 양수발전소 사업자에 신청하기로 했다.

죽곡면 고치마을 주민들은 산청 양수발전소 설치를 위해 수몰된 고치마을 주민들의 경협을 들었다.

또 저수지를 둘러보며 지역 상생 발전과 관광자원 연계 방안을 모색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양수(揚水)발전소를 유치하고자 하는 곡성군 죽곡면 고치마을 주민 50명이 최근 경남 산청 양수발전소를 찾아 추진 방안 등을 모색했다. <곡성군 제공>

## 고흥군 양성평등 조직문화 개선 팔 걷었다

### 직렬·세대별 5개 그룹 심층면접

고흥군이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조직문화 진단과 개선에 나섰다.

고흥군은 지난 1일 고흥군청 아동보호상담실에서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사업 일환으로 그룹별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3년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사업은 행정 통계조사와 설문조사, 심층 면접 3단계로 이루어지며 조직 내 인사·권한, 직무 배치, 일·생활 균형 등의 조사를 토대로 기관별 맞춤형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고흥군은 지난 6월 부서별 성별 균형, 육아 휴직 등 행정통계를 위한 자료를 제출했고, 전 직

원 대상으로 양성평등 조직문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심층 면접은 인사·여성정책 담당 부서 및 2030 청년 세대, 노조 대표 등 다양한 직렬과 세대별 공무원 5개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당 50분 내외로 진행했다.

군은 또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위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자기학습 운영, 성별 영향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조직진단을 통해 우리 양성평등 관련 현 상황을 파악할 좋은 기회”라며 “개선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등에 반영해 앞으로도 양성평등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